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개최

- ▣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져
- ▣ 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유권자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선거문화발전 유공자 및 가족, 유권자단체, 선거·정치 관련 학회 등 270여 명이 참석하여, 선거문화발전 유공자를 포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기념사,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노태약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간다고 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상시 공개하고 개표절차에 수검표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였다면서, 선관위는 헌법이 규정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유권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특혜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개방형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 도입 등과 함께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조직혁신에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 붙임 1.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기념사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념식 사진 1부

[붙임 1]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은 13주년을 맞는 ‘유권자의 날’입니다.

먼저,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참여와 화합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76년 전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이 실현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한때 46.1%까지 낮아졌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16년간 지속적으로 올라 6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정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쉽게 생성되어 무차별적이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과도한 비방과 공격으로 인한 극심한 정파적 대립과 갈등을 가져와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명한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견해 차이에 따른 상호견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맹목적 비난과 양극화는 관용과 절제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선거관리 영역과 권한도 점차 확대되어 위원회의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24시간 공개, 개표 절차에 수검표 추가 등 투·개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로 선출된 유권자의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라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권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과거 우리 위원회에 있었던 특혜채용 비리 의혹에 대하여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울러 그와 동시에 개방형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의 도입 등과 함께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혁신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수상자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 태 악

[붙임 2]

회의 사진



(사진 1) 2024.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2) 2024. 5.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